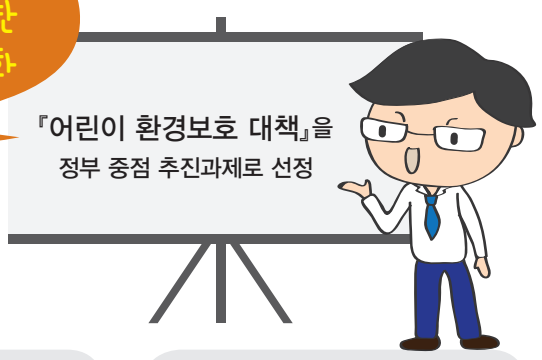
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**환경 정책** 바로알기

환경부

생활속 해로운 화학물질의 증가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의 건강문제 발생

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어린이 · 청소년 증가
(2000년 전체의 19% → 2010년 전체의 33.5%)

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화학물질의 관리강화



1.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
12천개소 검사, 169개소 무료 개선

2.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
『환경보건법』 개정('14년 3월)

3. 『화학물질 등록 평가법』, 『화학물질관리법』 시행
법 제정('13년 5월), 하위법령 개정('14년 12월)

1.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공간 만들기

배경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보육시설, 놀이터 등이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검사 · 개선하여 어린이 환경성 질환 저감

성과
- 어린이 공간 신 · 증축시 환경기준 적합여부 검사 제도 도입
- '09~'14년까지 12천 개소 무료 환경안전진단
- 어린이 활동공간 확대(초등학교 도서관 포함)

계획
-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'안심 어린이집 환경인증' 추진
- 15천 개소의 어린이 활동공간 무료 환경안전 진단 (200개소 개선)

2.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

배경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의 유해요소들을 제한하고, 표시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

성과
- 어린이 용품에 사용되는 4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
  * 플라스틱 제품(다이-n-옥틸프탈 등), 목재(트라이뷰틸 주석) 등
-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의 포함여부와 양을 표시하는 제도 시행('15년 1월)

계획
- 2천개 어린이용품이 환경유해요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지도· 점검
  * 문구용품, 가방, 물놀이용품, 플라스틱 완구 등
- 영세 어린이용품 제조기업 대상 역량강화 지원 확대('15년 90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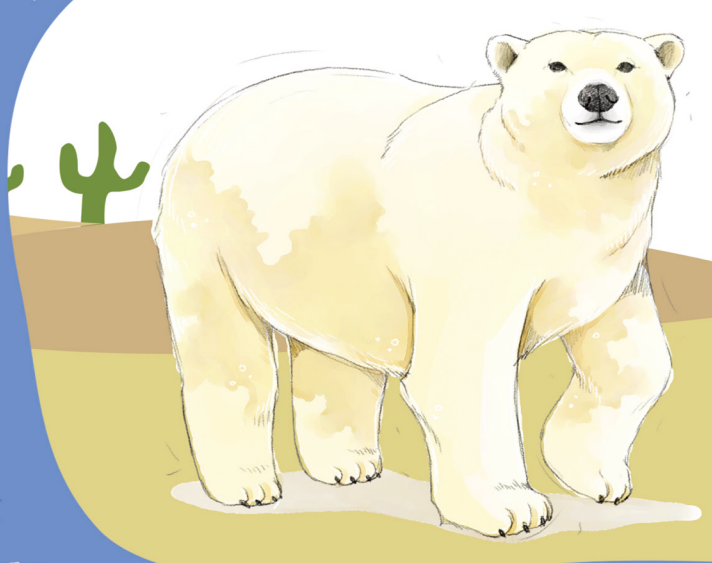
3. 생활속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아이 건강 지키기

배경
- 화학물질이 유통되기 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등록 · 평가하도록 하여 사전에 그 부정적 영향을 차단
- 집, 학교 주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우리 가족 건강과 안전 지키기

성과
- 국내에서 일정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경우 그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심사 · 평가하도록 하는 『화학물질 등록 평가법』 제정 · 시행
- 화학물질을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을 설치하기 전 그 안전성을 이중 · 삼중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『화학물질 관리법』 제정 · 시행

계획
- 기존에 유통되어 온 물질 중 500여 종에 대한 용도와 유 · 위해성과 유해성을 등록 · 평가하여 관리
- 방충제, 소독제, 방부제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생활속 화학제품들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
- 400여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지도, 안전검사 등 실시

국가 온실가스 감축,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!



2013년 한 해, 기상관측 이래 3개 시·도 최고온도 기록!

50년 만에 처음으로 2012년 한해 4개 태풍 상륙 (1조 23억 피해)

2012년 5~6월 누적 강수량 평년 43.2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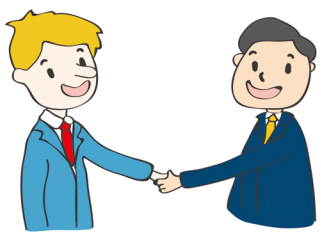
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(우리나라, OECD 중 배출 증가율 최고)

『온실가스 감축』을 정부 중점 추친과제로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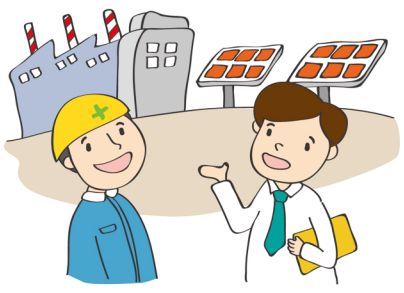
1. 온실가스 감축 국가계획 수립('14년 1월)
2. 배출권거래제 시행('15년 1월)
3. 자동차 온실가스 · 연비 기준 마련('14년 12월)

1. 기후변화 대응 청사진 『온실가스 감축 국가계획』

배경



국제사회와의 약속 :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('09년 11월)에서 『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』를 발표



산업계 등에 명확한 감축 의지 제시 필요

성과 및 효과

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끌기 위해 2014년 1월에 부처 합동으로 『온실가스 감축 국가계획』 수립 ('14년 1월)

- 감축목표 :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% 감축
  -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친화적 감축 제도 운영
  -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개발
  - 아시아 배출권 시장 선점
- 파급효과 : 친환경 산업 성장으로 GDP증가 (녹색기술 연구 투자 시 2030년에 GDP 1.66% 증가)

2. 환경도 웃고 경제도 웃는 『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』
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

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허용량을 정해주고, 기업이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의 기업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

이미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

추진경과

- 『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』 제정 ('12년 5월)
-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('14년 9월) 할당 대상 업체별 할당량 결정('14년 12월)
- 배출권거래제 시행('15년 1월)

기대효과

-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
  *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5년간 저탄소분야 특허 건수 2배 증가
- 저탄소 산업 일자리 창출
  * 영국은 전반적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저탄소산업분야 연 4% 성장

3. 자동차 온실가스 · 연비 기준 강화

배경

『온실가스 감축 국가계획('14년 1월)』 이행

자동차 온실가스 · 연비기준 강화 및 감축 필요
* 자동차 17.8백 만톤, 대중교통 등 16.2백 만톤 감축 효과

성과 및 효과

미래를 위한 선택!
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기준 개정('14년 12월)

구분		현행('12-'15년)	개정('16-'20년)
기준	온실가스	140g/km	24.3km/ℓ
	연비	17km/ℓ	97g/km
해외사례 (온실가스)		EU(130), 미(147), 일(117), 중(149g/km)	EU(91), 미(113), 일(100), 중(110g/km)

1. 국민들에게 환경편익과 연료 절감으로 대당 800만원 이익을 안겨줌
   * 5년간 총 55조원 편익
2. 국가 자동차 수출 경쟁력 향상
   *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

환경부

경제혁신 3개년 계획

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증진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